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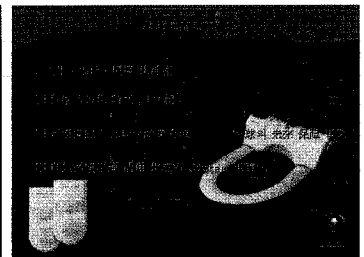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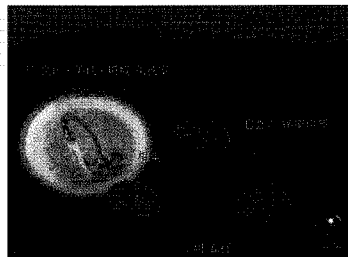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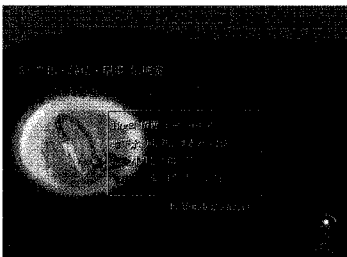
제16회 전국 화장실 심포지움(일본) & 제1회 아시아 태평양 화장실 네트워크 회의 특별강연(제)

글_심재덕 (한국화장실문화협회의 회장, 수원시장)

본 내용은 지난 11월 9일부터 3일간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市)에서 있었던 특별강연 내용으로,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연설 전문을 파워포인트(POWER POINT) 내용만 줄여서 3회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편집부

그리고 이제 모든 화장실을 환경을 생각하는 화장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연환경과 잘 어울려 자연의 일부분인 듯한 화장실의 외관과 함께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정화 시스템을 갖춘 화장실, 또는 화장실 내에서 모든 처리가 완료되는 화장실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노력을 통해 인간이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친환경적 화장실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흔히들 수세식 화장실을 가장 깨끗한 화장실인 듯 이야기 하지만 수세식 화장실만큼 친환경적인 화장실은 없습니다. 일찍이 오스트리아 건축가 훈데르트바써(F. Hundertwasser)는 시를 통해 수세식 화장실의 반 환경적 성격을 통렬히 비판하였습니다. 수세식 변기란 우리문명이 파놓은 가장 위험스런 함정중의 하나다. 얼마의 똥과 오줌을 씻어 내리기 위해 잘 정수된 음용수의 엄청난 낭비. 1kg의 가치있는 자원이 지하수, 샘, 강,

호수와 바다를 오염시키는 50kg의 유해물질로 그렇게 변한다. 한국의 전경수 교수는 똥을 위한 환상곡에서 동양철학을 원용하여 분노에도 오행(五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은 분노와 상극관계를 이루는 물질인데 오행을 모르는 양이(洋夷)들이 수세식을 개발하였고 지적하고 분노와 물, 두 자원이 섞이는 순간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수세식 양변기는 배척해야 할 환경파괴적인 기술이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 대안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처리방식을 도입하여 공동주택의 지하에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미생물 발효를 통해 발생된 천연가스 메탄을 각 가정으로 환원하며 숙성된 분뇨를 유기영양단지로 수송시킬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화장실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창출하고 동양의 옛 전통과 같이 천연비료로 활용하지는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환원리에 가장 잘 맞는 방식



본 협의회는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차원의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제2회 한·일 화장실 포럼은 오는 7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입니다. 21세기는 과학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세계 각 국의 석학들은 벤처산업이야말로 21세기에 걸맞는 사업이라고 하고 각 국들은 벤처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사업이야말로 지구의 미래를 보장하는 벤처산업입니다. 저는 세계의 석학들이 화장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화장실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제반 여건이 형성된다면 자연의 순환원리에 일치하는 화장실 시스템이 머지않아 현실화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III. 화장실문화운동 발전을 위한 과제

1. 공급자의 의식을 변화시키자.

이제 화장실 문화운동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화장실 문화운동 발전을 위해서는 화장실이 갖는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가치를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우선 공급자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의 단일 건축물로서 화장실이 건축되어진 후에는 변경하기가 대단히 힘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까지 화장실의 주 공급자인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들은 화장실을 단순한 배설공간으로만 인식하고 한 모퉁이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날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먼저 공급자의 의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화장실 문화운동은 메아리 없는 외침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제대로

화장실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화장실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인가를 이해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화장실에도 투자의 개념, 마케팅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화장실 공간이 국민의 복지를 위한 공공부문의 기초시설일 뿐 아니라 그 지역에서 'LAND MARK' 역할과 관광상품의 기능을 하는 등 다양한 역할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수많은 외국 관광객이 방문할 것입니다. 그들은 양국의 문화유적과 관광지, 음식점 등 곳곳을 둘러볼 것이며 또한 모든 곳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화장실의 인상은 국가의 인상으로 귀결됩니다. 다시 말해 어느 한 지역의 관광지 또는 음식점의 화장실이 불결하면 본국에 돌아간 후 그 나라에 갔더니 「화장실이 엉망이더라」, 「호텔에서 용변을 본 후 관광에 나서라」고 주위에 충고(?)를 할 것입니다. 반대로 관광지의 화장실을 그 관광지의 특성에 맞게 시설해 놓으면 그들의 인상은 정반대가 될 것입니다. 문화유적에서 받은 감동을 배가시켜 어쩌면 문화유적보다 화장실에서 받은 감동을 더 자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화장실이 관광의 중요한 인프라이다」라는 인식에 동의 하신다면 화장실에 투자의 개념을 도입하지는 저의 주장에도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2. 관리기법의 체계화

두번째로 화장실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형성해야 합니다.

화장실을 아무리 잘 꾸며놓아도 유지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는 관리의 주체가 관심을 기울여 나름의 기준으로 유지관리의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유지관리가 일과성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지속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화장실의 특성상 한 명의 이용자가 잘못 사용하면 그 화장실의 관리는 엉망으로 인식되어 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용 의식이 제고 될 때까지는 끈질기게 붙어서 묵묵히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유지관리전문업체에게 맡겨 관리의 효율을 기하는 방법과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전문적인 화장실 유지관리업체가 아직 일반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시설의 화장실 관리 know-how를 기초로 대형건물의 화장실을 관리하는 전문업체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단순한 청소에만 그친 화장실 관리를 문화가 가득 담긴 공간으로 관리하고, 정화조의 관리와 연계시키면 이 분야의 발전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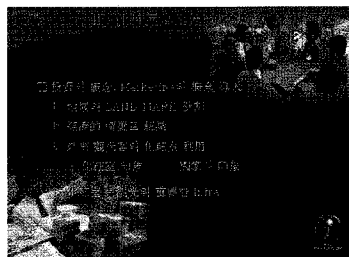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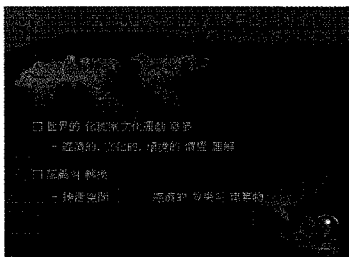
3. 시민의식 고양

세번째로 화장실 사용수준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급자는 복지와 환경을 생각하는 화장실을 공급하고 관리자는 화장실에서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이용자들은 공공시설을 내 것처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잘 꾸며진, 그리고 잘 관리되어진 화장실이 엉망이 되어 있을 때 이용자는 관리자에게 예절바르게 알리고, 다른 공공장소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에 사용할 사람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 되는 것입니다. 결국 화장실의 모습이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관리자, 이용자의 세 박자가 꼭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4. 과제수행의 효과적 방법

이상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과제를 구체화 하고 현실화시키는 것이 각 국에서 결성 되어진 화장실 협의회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화장실의 주 공급자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체들에게 화장실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과학자들에게 화장실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건축가들에게 설계부터 개념을 가지고 화장실을 설계하도록 하여



한국의 새로운 화장실 개념인 문화·복지·환경이라는 세가지 테마를 가진 화장실의 의미는, 오는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장실 대표자 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에 알려질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화와 복지·환경을 살리는 화장실을 건축하는 일과 전문관리회사를 육성하는 일, 그리고 이용자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일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권위 있는 화장실 문화 단체를 결성하여 세계적인 차원에서 운동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IV. 결언 및 제안

- 세계 화장실문화협의회를 결성하자

월드컵의 공동 개최국으로서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명예를 걸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협력과 경쟁을 하고 있는 양국 정부에 대해 지금만큼 화장실문화운동의 인식을 촉발시키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좋은 기회는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월드컵을 계기로 관광 인프라의 구축이라는 한가지만으로도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와 일본화장실협회는 이 점을 잘 살려 양국의 화장실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아 함께 협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16회 일본 화장실 심포지움은 아시아·태평양 화장실 네트워크 회의를 결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화장실 학술회의가 세계적 연대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토론이 되어져 화장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각국의 화장실 협회가 하나가 되어 세계의 화장실을 변혁시키는데 힘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한국에서 개최된 제1회 한·일 화장실 포럼 2000

에서도 제안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세계 화장실문화협의회가 발족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세계의 화장실 실상에 대한 정보 교류를 통해 그 내용을 공유하고, 인류 공통의 문제인 문화와 위생, 환경, 복지의 측면에서 화장실을 함께 연구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틀로서 세계화장실문화협의회의 결성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새 천년의 시대적 요청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도시지역에서 일반화 되어있는 수세식 화장실의 반환경적 요소 극복방안, 에너지절약의 문제 등 화장실과 관련하여 연구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한 나라에서만 되어질 수 없는 인류공통의 과제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활기찬 화장실문화운동과 일본에서의 운동경험이 결합되고 다른 여러 나라의 활동이 합쳐지면 전 세계에 거주하는 60억 인구의 위생과 환경, 복지, 문화 등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